

Q1.

이 전시품들의 출처는 어떻게 되나요?

이 곳에 전시하고 있는 전시품 일체는
해외 유명 경매사에서
이랜드그룹이 경매로 구매한 것들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념으로
이 곳 플로라호텔에 '올림픽' 주제로 전시하게 되었으며,

얼마 전에는 김연아 선수와 사마란치 IOC위원장을 비롯한 IOC위원들이
방문해 전시를 관람하고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Q2.

개인의 영광인 금메달이 왜 이곳에 전시되어 있나요?

1) 경제난의 이유

첫 근대올림픽(1896)의 마라톤 우승자 '스피리돈 루이스'는 올림픽 우승 이후 전세계 부호들의 열렬한 러브콜을 받았으나 다 거절했으며,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첫 성화봉송 점화자로 나설만큼 국제적인 인기를 끌었던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이 생계가 막막해지자 그의 조상이 받은 우승컵을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그의 손자는 경매가로 약 2억8천을 받았으며, 일부의 비판적인 시선에 "나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이다. 나에겐 두 아이가 있고 내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올린 성과는 집안의 영원한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통한 공식경매

지난 베이징 올림픽 당시 선수촌에서 쓰던 농구스타 야오밍의 특수제작 침대, 우산, 선수촌 내의 집기류 등 선수들의 개인 물품이나, 개막식에서 선보인 북 2008개, VIP 장식의자 등 소장가치가 있는 물품을 조직위원회가 베이징 지적재산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위탁 판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개인의 영광보다 박물관 등 더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후손들의 의도 등으로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Q3.

금메달 전시인데 왜 금색이 아닌 은색인거죠?



첫 근대 올림픽이었던 1896년 아테네 대회는 금메달이 없었습니다.
1위가 은메달(좌측사진), 2위가 동메달을 받았고
3위는 메달을 걸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1,2,3위에게 금, 은, 동메달을 걸어준 것은
1904년 세인트루이스 대회(좌측사진)부터였습니다.
최초로 순금을 사용해 제작했던 당시 금메달의 지름은 38mm였습니다.



1912년 스톡홀름 대회를 마지막으로 '진짜 금메달'은 사라지고
1920년 안트베르펜 올림픽부터 금이 소량 포함된 '합금' 금메달이
대세가 됐습니다. 대신 지름이 50mm 이상 커졌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받은
금메달의 지름이 55mm였습니다(좌측사진).

*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메달은 지름 70mm, 두께 3mm를 넘으면 됩니다.
금메달은 최소 6g의 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4.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의 '올누드 포스터'



제 5회 스톡홀름 올림픽의 포스터는
고대 올림픽의 정신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알몸의 남성 그림을 그렸는데
선정성을 이유로 몇몇 나라에서 배포를 금지 당했습니다.

Q5.

농구 강국 미국의 1972년 뮌헨 올림픽 흑역사 '3초 사건'



미국은 1936년 농구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이후 68년까지 단 한번도 금메달을 놓친 적 없는 농구로서의 자부심이 강한 강국이었습니다.

그런 미국 농구에 최악의 오심으로 인한 흑역사로 기록되는 사건이 이 '3초 사건'입니다.

결승전에서 미국과 소련이 경합을 벌였는데 미국이 1점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심판이 시간 측정을 잘못하여 3초 빨리 경기가 끝났습니다.

당연히 소련 대표팀이 항의했고 심판이 이를 받아들여 3초를 더 진행했으나

소련이 득점을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소련이 이에 또 항의를 하자

이를 받아들인 심판이 3초를 더 주버리는데 여기서 소련이 역전하여

경기는 1점 차로 소련이 이기게 됩니다

당연히 미국 대표팀은 분노하며 은메달을 거부해버렸고,

유럽 쪽에서 미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설이 나왔습니다.

미국팀이 거부한 은메달은 현재까지도 IOC에서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Q6.

박찬걸 작가에 대해서 궁금해요.

<이나 바우어>는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의 이나 바우어 자세를 형상한 조각으로 슬라이스 된 스테인리스들의 조합으로 리듬감과 입체감을 살렸습니다.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박찬걸 작가는 다비드, 마이클 잭슨, 비너스, 마를린 몬로 등 세계 영화 속 인물이나 유명인들의 이미지를 이용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슬라이스 이미지 다비드>가 있는데, 미켈란젤로의 <다비드>(1501~1504)를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용하여 재탄생시켰습니다.

Q7.

‘갈색 탄환’ 칼 루이스 VS ‘마하 인간’ 벤 존슨

1988년 당시 올림픽 최대 관심은 남자 100m 달리기였습니다. 9초78이라는 최고기록의 ‘루이스’와 0.05초 느린 라이벌 ‘벤 존슨’의 팽팽한 기싸움 때문입니다.

9초79!로 벤 존슨은 자신의 최고 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쟁취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벤존슨의 금메달은 3일 천하로 끝이 납니다. 경기 후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메달이 박탈됐기 때문입니다.

이로서 루이스는 1988년도에도 금메달리스트로 기록되었습니다.



Q8.

에이즈 환자의 부상투혼

루가니스는 올림픽 최초 3미터, 10미터 다이빙에서 84년, 88년 연속 2관왕을 차지한 다이빙의 영웅입니다.

1988년 3m 스프링보드 예선 9라운드 예선전.

공중회전 묘기를 펼치던 루가니스는 스프링보드에 머리를 부딪혀 그 자리에서 머리를 4바늘이나 꿰매야 했습니다. 계속 흐르는 피에도 약물규정 때문에 마취제를 사용할 수 없었기에 통증은 엄청났음에도 금메달을 따냅니다. 기적같은 모습에 세계인은 감탄했고, 감동의 사나이로 추앙되었습니다.

하지만, 1994년 그의 폭탄선언.

“동성연애자이고,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이다”

이에 세계인은 놀랐고, 1988년 경기를 함께했던 다이버, 치료사를 경악케 했습니다. 검사결과 다행히 에이즈가 전염되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1988년 올림픽의 가장 큰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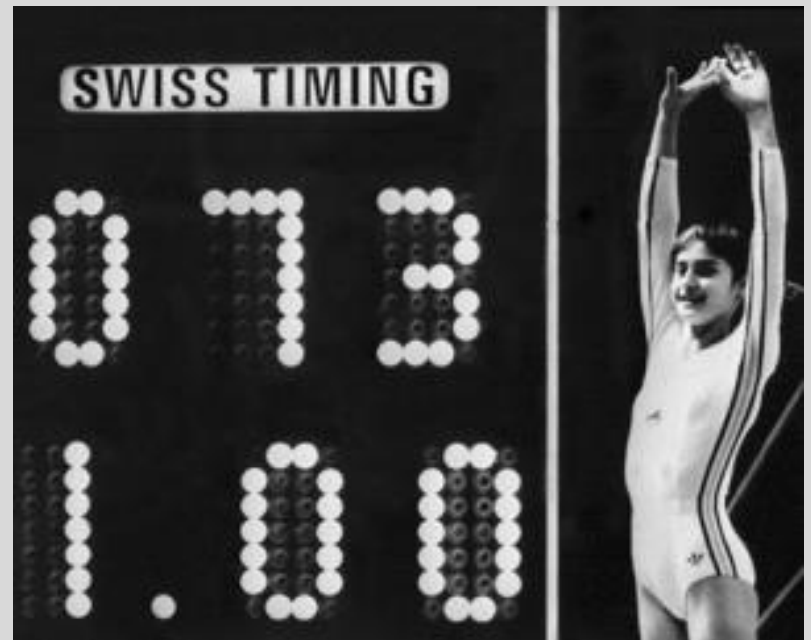


Q9.

완벽한 기록 속의 에피소드

완벽한 기록 뒤에 숨겨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체조의 원조 요정이라고 할 수 있는
루마니아의 나디아 코마네치는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 때 평행봉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 대회에서만 무려 7차례나 10점 연기를 펼치며
평균대, 2단평행봉 등 3관왕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광판에는 10점을 표시할 수 없어
1.00으로 표시됐고, 이를 본 코마네치는 미소로 화답한 일화가 있습니다.



Q10. 1992년 이후 1994년? 올림픽은 4년 주기 아닌가요?

원래 92년도 전까진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이 같은 해에 계절 차를 두고 열렸습니다. 하계올림픽이 보통 7~10월에 열렸다면, 동계올림픽은 1~2월 정도에 열렸죠.

하지만 원래 4년마다 하계올림픽과 같은 해에 열려야 하는 동계올림픽이 앞당겨 열린 것은, 동계올림픽이 하계올림픽보다 주목을 덜 받았고 있었기 때문에 1986년 IOC 총회가 동계올림픽을 하계올림픽과 개최연도를 달리하여 열 것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92년 이후로 하계와 동계올림픽은 2년 차이를 두면서 4년의 주기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Q11.

1908년 런던 올림픽 '성경책 시위 사건'

1908년 런던 올림픽 남자 허들 110m 결승전에 참가한 미국의 '포레스트 스미슨'은 미국 오리건 주립 대학교 신학과 학생이었는데 경기가 일요일에 열리는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왼손에 성경책을 들고 뛰었습니다.

정말 강렬한 신앙심이 한몫을 했는지 실제로 스미슨은 이 경기에서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Q12.

1908년 런던 올림픽 '도란도 실격 사건'

올림픽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인
1908년 런던 올림픽 '도란도 실격 사건'

4회 런던 올림픽은 올림픽이라고 칭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막장 운영을 선보였던 것에 비해 국가대표들이 유니폼을 입고 국기를 들고 입장하며, 경기 규칙 제정, 42.195km의 마라톤 코스가 확정되는 등 국제 스포츠 대회로서의 틀이 잡힌 대회였습니다.



그러나 마라톤 경기에 이탈리아 제빵사 출신인 '도란도 피에트리'가 경기 도중 2번이나 탈진해서 쓰러지자 당시 마라톤 심판으로 활약했던 '아서 코난도일'(사진 왼쪽인물)이 피에트리를 일으켜 세워 1등으로 골인시켜버렸습니다.

그나마 근대 올림픽의 초석을 세운 대회가 막장으로 몰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2등으로 들어온 선수가 항의했고, 피에트리 선수는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탈리아에서 피에트리만큼 천재 마라토너로 평가받는 선수가 없을 정도로 피에트리 스스로 1위를 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심판의 행동은 2위의 금메달을 막는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념 김연아 선수의 이나바우어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조각상.
인물을 건축적으로 재해석하는 박찬걸 작가의 작품으로
스테인리스 스틸을 겹겹이 쌓아 피겨스케이팅의 리듬감을 표현했다.

*이나바우어(양 발의 스케이트 날을 다른 방향으로 놓고 활주하는 기술)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100m 금메달

미국의 수영 금메달리스트 듀크 카하나모쿠의 메달.
스톡홀름 대회는 순금메달이 제작된 마지막 올림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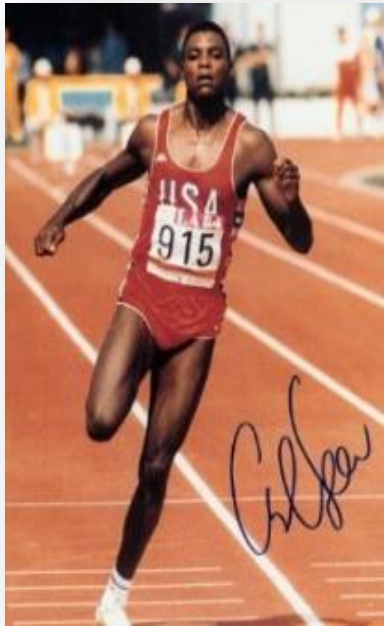
1956년 멜버른 올림픽 미국 농구팀 금메달

미국 농구팀 포워드 칼 케인의 금메달. 8번의 경기 모두 30점 이상의 점수차로 승리했으며 미국은 1936년 이후 4연패에 성공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미국 남자 농구팀 금메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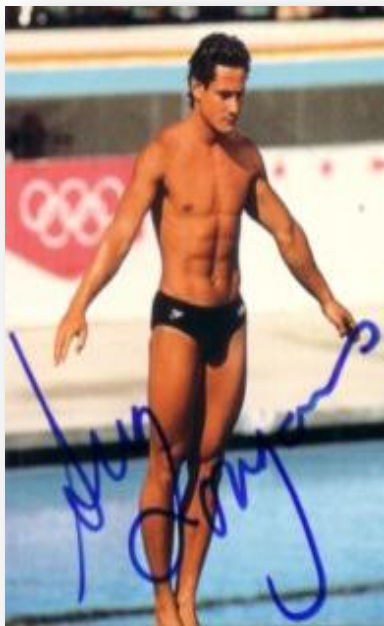
미국 농구 대표팀 파워포워드 빈 베이커 선수의 금메달.
8전 전승으로 승리하며 미국의 12번째 농구 금메달을 획득했다.



칼 루이스 친필사인

USA, 1961~

1984년 LA~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 육상 9관왕
(100m, 200m, 400m 계주, 멀리뛰기)



그렉 루가니스 친필사인

USA, 1960~

1984년 LA, 1988년 서울 올림픽 다이빙 4관왕(스프링보드, 플랫폼)



나디아 코마네치 친필사인

Romania, 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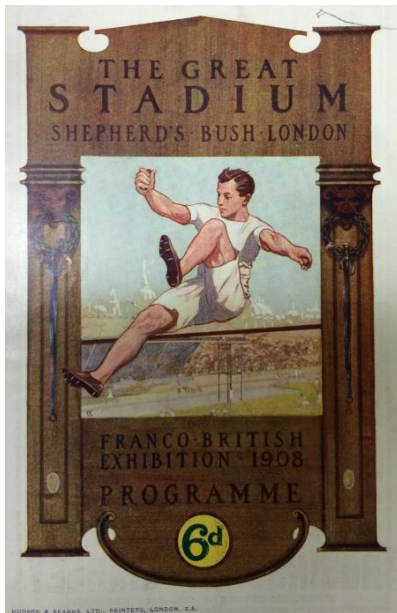
1976년 몬트리올,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체조 5관왕
(기계체조 개인종합, 이단평행봉, 평균대, 마루)



제16회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France, 1992



제17회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Norway, 1994



1908년 런던 올림픽

올림픽 공식 프로그램북

육상 경기 일정과 선수 정보가 기재된 한정판 책자.
공식 포스터가 없던 대회로 올림픽 대표 이미지로 사용